

WHO meeting 참관기

카톨릭의대
임영

깊숙한 의식 속에서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자리잡고 있던 중국으로의 여행은 별로 해외경험이 없는 나에게는 확실히 큰 모험이었다. 조규상교수님을 비롯한 교실의 여러 교수님들과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WHO 회의보다 이주일 앞서 신앙에서의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회의의 참가로 먼저 출발하셨기 때문에 우연히 혼자 따로 떨어져 여행일정이 잡혔다. 중국에 다녀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전화로 수소문하여 중국이 치안상태나 사회질서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야 비로소 비자수속을 시작했던 것이 생각한다. 더구나 출발당일 13일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1시간 전 출국수속을 하면서 갑자기 WHO 회의 장소가 적힌 서류를 책상설함에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느낀 당혹감은 상해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안절부절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대만을 거쳐 홍콩에서 비행기를 바꿔탄 후 상해 국제공항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8시간, 어둑어둑해진 저녁 6시경에야 겨우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도 공항입구에서 WHO 피켓을 든 아가씨를 만나 별 어려움 없이 회의장소까지 왔는데 사실 그 아가씨는 내가 아닌 이번회의 자문의를 마중 나온 것이었고 난 단지 우연한 행운을 얻은 것을 알고서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드렸는지...

회의개최장소인 Jinjang 호텔까지는 공항에서 약 30분거리로 차 속에서 한참동안 중국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내게 비친 중국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블록형도로와 중국특유의 유치해보이는 깜빡조명, 그리고 신호등 까지도 가린 채로 그냥 놔둔 커다란 플라타나스나무와 그 사이를 달

리는 자전거행렬로 투박하면서도 오히려 생기 있어 보였다. 차에 동행한 자문의 Gandavier박사로부터 6.25동란시 참전군인으로 파견되었던 이야기며 2년전 한국 방문시 느낀 놀랄만한 발전에 애기를 주고받는 동안 Jinjang호텔이 시야에 들어왔다. 상해가 국제도시라는 말답게 그 근처에는 여기가 홍콩인지 동경인지 구별할 수 없으리만큼 휘황찬란한 큰 건물들이 많았고 특히 이 호텔은 1974년 미국 닉슨대통령이 중국방문시 머물렀던 숙소답게 비록 많이 낡았으나 아직 장중한 멋과 주위의 아담한 쇼핑홀이 아주 특징적이었다. 도착한 날 밤은 일본의과대학에서 연구기간 중 많은 도움을 받았던 O.Kawanami교수, Tanaka교수 그리고 역시 중국에서 연수를 왔었던 Jiang선생과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던중 한국으로부터의 교수님들이 신앙에서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숙소로 찾아가 다음날 발표할 연제 슬라이드를 살펴보며 일찍 쉬었다. 회의 첫날인 14일 WHO회의는 아침 정각 8시30분에 WHO 지역사무국장의 opening session으로 시작되었고 곧 이어 공식참가자, 즉 자문의 2명과 중국의 4개 기관 일본의 2개 기관 그리고 우리팀 모두 7개 기관의 기념촬영과 자기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곧 이어 각각의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발표가 있었는데 첫번순서는 일본어였다. 구주산업의과대학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탄광 및 석면공장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두나라의 광부들에게서 얻은 폐기능성적 비교를 했으나 이들의 자료가 워낙 적고 진폐증의 정도에 관한 고려가 없어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역시 같은 케이스에서 시행되었던 세기관지경검사소견, 기

관지폐포세척액 그리고 경기관지 폐포조직검사 결과분석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폐조직및 기관지폐포세척액내에서 유리규산의 광물학적 정량분석과 섬유화를 반영하는 각종 생화학적, 면역학적 인자의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일본의 앞선 실험실수준을 증명해 주는듯 하였다. Tanaka세기관지경을 고안한 Tanaka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과 향후 개선할 점 그리고 흡연자에게 있어서의 특징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두번째가 한국차레로 윤임중교수님의 “진폐증의 영상학적 진단”에 대한 107명에서의 고해상도부단층촬영술의 연구결과보고가 있었고 그에 이어 내가 같은 예에서 기관지경검사, 기관지폐포세척액, 그리고 경기관지폐포조직검사에 대한 세포조직병리의 특징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으로는

① 세기관지경 검사상 색소침착소견은 경기관지폐포조직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② 증례보고에서 흉부사진이나 고해상도부단층촬영에서 거의 정상으로 보인 3예에서 세기관지경검사상 색소침착이 관찰되었고 이들이 모두 조직검사상 탄분육아종이 발견되어 세기관지경의 진폐증 조기진단에 있어 의의를 보여주었다.

③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는 총세포수, 호중구 임파구, 호산구는 모두 진폐증의 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으나, 여기에는 흡연및 기관지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다음은 정치경교수님의 진폐증정도에 따른 폐기능성적을 다시 세기관지경소견에 의해 분석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들 매우 관심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4개 연구소와 많은 연구자가 참가한 중국측에서 연제발표가 있었는데 232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내용은 거의 우리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분석방법이 좀 더 다양하여 흡연유무, 진폐증의 종류(즉, 규폐증, 석면폐증, 알루미늄폐증)에 따른 분석이 흥미있었으며 특히 상해진폐연구소에서 PVNO(Polyvinyl N-oxide), Pipevaquine

phosphate, hydroxy pipevaquine, tetrandrine, aluminium citrate를 사용한 진폐증의 치료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신뢰할만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한 듯 싶었다. 한 연제발표가 끝날때마다 많은 질문과 토론이 뒤따랐기 때문에 첫날의 발표는 6시30분이 지나 겨우 끝났고 뒤이은 WHO 상해사무국주최 환영만찬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3년간 연구의 성공적인 결과보고에 대하여 자축하며,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회의 둘째날인 15일은 WHO 자문위원인 NIOSH의 Parker박사의 진폐증에 대한 전반적인 조기진단, 관리 그리고 예방대책에 관한 포괄적인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은 상세히 한국의 산업의학 1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그는 분진의 환경관리, 의료관리와 함께 고용주, 근로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한사람의 자문의인 Gandavier박사는 “as a person” 측면을 강조하여 이 공동연구는 탄광부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임상적인 면과 “mass survey”라는 역학적, 예방의학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서 참석자 전원은 진폐증의 “조기진단”이라는 참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오후에도 early pneumoconiosis(조기 진폐증)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질문과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이것은 대략

① 증상발현이 나타나기 전단계이므로 조직반응의 가역화단계이고,

② ILO분류상 category 1/0이하로 진폐결절이 확실히 관찰되기 전단계이며,

③ 분진이 조직과피 및 섬유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상태일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다음날인 16일은 이틀간의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그에 의한 차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토의가 있었다. 요약하여 보면 세기관지경 검사에 의한 결과분석이 흡연력, 상세한 과거력등에 의하여 세분, 체계화되어야 하며 관찰소견중에는 특히 색소침착에 있어서의 차이 즉 청색, 보라, 흑색, 갈색, 녹색에 따른 조직병변 차이와 결체조직이상의 유무를 진단내리고 이와 함께 진단의

감수성과 특이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지폐포세척액분석과 폐조직검사가 계속 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워졌다. 결국 이날로써 실제 회의일정은 막이 내려져 그 날 저녁은 WHO마닐라 서태평양사무국에서 주관하는 부폐파티가 있었으며 모두들 개인적인 질문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17일은 상해 진폐연구소로의 견학 스케줄이 있어 아침 10시경 차로 출발하여 약 40분정도 지났을까,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책임의사인 Hu의 안내로 연구소를 둘러봤는데 모두 120베드정도로 90베드는 진폐증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중독 환자들 용이라고 하였다. 환자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으나 입원환자의 평균 연령이 약 40세인 점을 미루어보면 그들의 진폐관리가 아직 미흡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소의 시설이나 병실의 위생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에 비하여 모든 의사나 연구원들의 연구에 대한 열의는 놀랍도록 높았으며, 그러한 불충분한 실험실에서 것처럼 훌륭한 분석자료가 얻어졌음을 보고 다시한번 나 자신의 나태를 반성하였다. 그곳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4%

PVNO 용액을 하루 8ml씩 흡입시키는 것을 구경하였으며 실제 환자들로부터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 PVNO에 대한 안전성여부도 입증되지 않은 채 이러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중국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곳에서 처음 본 다양한 환자(즉 알루미늄폐증, 석면폐증, 규조토포증)를 소개받아 직접 흉부사진을 대조하며 환자의 이학적검사를 해보는 등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18일 중국을 떠나던 날, 다른 교수님들은 여행일정에 따라 그 전날 모두 계림으로 떠나신 후였기 때문에 역시 이날도 아침일찍 혼자 짐을 챙겨 도착시 황당하게만 느껴졌던 상해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제법 익숙한 태도로 일찌감치 출국수속을 마치고 2층에 올라가 출발시간을 기다리며 차를 청하였다. 중국옷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가 가져다 주는 우롱차를 한모금 마시며 비로소 긴장에서 이완되어 5박6일 중국여행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혔다.(비록 상해중심가의외엔 한 발도 나가 본 적이 없었지만). 이런 귀중한 경험을 갖게 해주신 교실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년 후 좀더 훌륭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